

##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

2013년 라디오 강론(요한계시록)

### 33.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2)

2013. 08. 18.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7장에 있는 바람을 잡는 것이 어떤 뜻인지 살펴보았고,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중에 시간이 되어서 마쳤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다른 사실도 공부하겠습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입니다.

[계7:1~3]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2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3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1.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친 하나님의 인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겠느냐고 하셨습니다. 계14장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예)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에 대하여 좀 더 이야기해야 하겠다고 했는데, 말씀하시지요.

답: 지난 시간에 성경에서 이름에는 그 이름을 가진 존재의 품성과 속성 및 그의 전인격이 담겨 있으며 또 그의 권위와 능력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의 이름 사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면 이름을 바꾸어주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준 것이지요.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보증하는 것으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이지요. 아브라함의 신분과 지위가 달라진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사람이라는 표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은 다 아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고, 이스라엘은 승리자라는 뜻이지요. 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야곱의 생애는 이름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설명하는 생애이기도 합니다.

2. 예, 목사님, 그것은 일상의 이름에 대한 설명인데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찍혔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마에 그 이름을 찍은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답: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마에 이름을 찍었다는 것은 물론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마는 뇌의 전두엽이 있는 위치이지요. 전두엽은 뇌의 CEO라고 합니다. 두뇌로 들어오는 모든 정보

는 전두엽에 모인다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전두엽은 뇌의 기능을 주관하는 장치라고 해야 하겠지요. 그것이 바로 이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찍힌다는 것은 그 사람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하여 숙지(熟知)하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여호와가 누구인지, 어떤 분이신지, 그 이름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등등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잘 알고 그 이름의 의미와 의도를 따라 뇌를 주관하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께 속한 사람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격이 형성되고 생활이 진행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3. 여호와의 이름이 뇌를 주관한다는 것을 어떤 뜻인지 좀 이리송합니다. 무엇인가 인식에 확 잡히도록 말씀하시지요.

답: 어떻게 하면 인식에 확 잡힐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지요. 이름의 기능을 말할 때 이 이름의 중요성을 이야기 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에는 성경의 모든 내용이 포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했거든요. 여호와를 아는 것은 바로 그 이름을 아는 것과 동일합니다. 호세아 6:3을 읽어볼까요?

[호6:3]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 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이 말씀은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자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언젠가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목사님 기억이 없나요? 아무튼, 여호와라는 말이 구약성경에 6500번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름에는 성경의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단은 사람들이 이 이름을 아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이름을 알지 못하게 숨기도록 공작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4. 사단이 이름을 숨기도록 했다는 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답: 예, 제가 깊이 생각해 봤는데요, 여호와를 아는 것은 그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올바르게 알면 여호와를 올바르게 아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단은 그것을 두려워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능한 한 성경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알지 못하도록 집중적인 공작을 한 것 같아요. 십계명 중에 셋째 계명은 네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혹시나 망령되게 부를까 두려워했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이름을 발음을 내어 부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문화적으로 타부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말로 하면 금기(禁忌)라고 하지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발음대로 읽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글자로 “요드 헤 와우 헤” 이렇게 네 글자인데요. 히브리 자모는 모음이 없거든요. 자음뿐입니다. 22자가 다 자음입니다. 그래서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에게 단어마다 읽는 법을 배워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요드 헤 와우 헤는 읽는 사람이 없으니까 발음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글자가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읽었는데요, 아도나이는 알레프, 달렛, 눈, 요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한 글자인 요드, 헤, 와우, 헤와는 전혀 다른 글자이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글자는 있지만 발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글자가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번역에서 요드 헤 와우 헤를 다 쿠리오스라고 번역했습니다. 쿠리오스는 주님이라는 말이지요. 그 다음부터 성경을 번역하는 대부분의 번역들이 요드 헤 와우 헤를 주님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제롬이 라틴어로 번역할 때 그렇게 했고,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할 때 그렇게 했고, 그리고 대부분의 영어 번역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유명한 킹제임스 번역에도 여호와라는 말이 거의 없지요. 세 번만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22:14절에 여호와 이레를 번역할 때와 출애굽기 17:15절 여호와 닛시, 사사기 6:24절 여호와 샬롬 이렇게 세 번만이 여호와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외에는 모두 주 LORD를 썼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여호와라는 이름과 아도나이를 구별하기 위하여 여호와는 주라는 글자를 모두 대문자를 썼고 아도나이를 주라고 번역할 때에는 첫 글자만 대문자로 썼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부를 때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한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영어 번역들도 대부분 주님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미국표준역(ASV)는 여호와(Jehovah)라고 번역했고요 예루살렘 성경이라고 나온 것은 야훼라고 했는데 우리 성경은 주라고 하지 않고 다 여호와라고 번역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5.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런 비밀이 있군요. 그런데 발음을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여호와라고 발음을 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답: 그렇군요. 사실 히브리어는 읽을 수 없는 글자가 되었지요. 모음이 없으니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원 6,7세기경에 유대의 전통을 살리려는 유대인 학자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맛소라 학자들이라고 합니다. 전통학자라는 뜻이지요. 그들이 누구든지 배우면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도록 모음 발음기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 발음기호 작은 점과 선으로 된, 흔히 모음점이라고 말하는 그 발음기호를 히브리어 자음 밑에나 위에 붙여서 발음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요드 헤 와우 헤는 발음이 전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음을 어떻게 붙여야 할지 몰랐지요. 그들이 궁리한 끝에 그 글자를 대신하여 읽어온 아도나이에 붙이는 모음 점을 요드 헤 와우 헤에 붙여서 발음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말로 여호와라는 발음이 되었는데, 아마도 예호와가 그들이 붙이 모음으로는 더 가까운 발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원래 발음을 찾았다고 하여 야훼 또는 야외라고 발음하지요. 아무튼 그 발음을 그렇게 만들어 읽게 되었고, 그 뜻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출애굽기 3:14에 의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도나이라고 읽든지 그냥 주님이라고 읽으면 그 뜻이 올바르게 전달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6. 그 이름 여호와를 바르게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답: 사실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면 그 사람을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저기 집회를 인도하려 많이 다니는데, 얼굴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름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얼굴을 알아도 그 사람을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얼굴은 몰라도 이름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을 아는 것 같이 느낍니다. 이름은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성경의 하나님을 그냥 주님이라고 부르면 성경의 하나님의 개성이나 인격이 드러날 수 없지요. 그분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신데 그 이름 여호와를 제하여 버리면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설명을 해야 되지요. 그러나 여호와라는 이름을 바르게 알면 당장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 인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주와 만물이 스스로 계시는 분에 의하여 존재하게 되었구나하고 짐작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잊어버리는 것은 그분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죽고 세상에 없게 되는 것을 그 이름이 잊어버린바 된다고 표현했습니다. 전도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9:5]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그렇지요?(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공작했다는 저의 생각이 지나친 것 같지는 않지요?

7. 그 정도의 설명으로는 그렇게 힘써 알자고 할 만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이 생각됩니다만, 이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되지만 그렇게 사단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중요할까요?

답: 목사님이 아주 미심적어 하는군요. 이제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면 동의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성경을 읽어봅시다.

[호12:5]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호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기념 칭호입니다. 기념이라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인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이름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같은 내용이 출3:14,15에도 있습니다.

[출3:14,15]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15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니라.

여기서는 대대로 기억할 표호라고 번역했는데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지를 연구해봐야 하겠지요.

8. 목사님이 그것을 연구하신 것 같으니까 그것을 말씀해주시지요.

답: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말하려면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요약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그렇게 하시지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고백할 때에 그 이름에는 적어도 네 가지 기억해야 할 기념들이 있습니다. 그 네 가지는

사실 성경의 내용이 다 포함되는 기념들입니다.

첫째는 그 이름은 성경의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것은 곧 성경의 하나님의 존재방법의 기념입니다. 존재방법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은 스스로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면 그것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름 안에 존재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따로 존재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아도 기억하도록 해 두신 것입니다. 이 이름을 가지신 분만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이름입니다. 스스로 있다는 것이 어떤 상태를 말하는지 생각해보니까요, 그것은 그 존재 근거와 이유가 자기 자신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목사님이나 저나 애청자들이나 우리의 존재 근거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지요. 나의 존재 근거는 나 외에 있습니다. 즉 부모님이 나를 낳았기 때문에 있지요. 그러나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가 존재하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것이 스스로 있다는 말의 뜻이지요. 그래서 그분은 피조물과 근본이 다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거룩함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 근본이 다른 존재문제입니다. 우주 만상은 아무것도 스스로 존재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이 이름을 가지신 분만이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고 스스로 존재하신 분만이 이 이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할 때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존재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다고 고백하는 의미도 이 이름을 알 때에 확실해집니다.

둘째는 이 이름은 창조주라는 것을 기념하게 합니다. 첫째 기념에서 말했지만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존재한 것이 없습니다. 땅도 흙도 물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스스로 계시는 분이 있도록 해서 비로소 있는 것들입니다. 우주 만물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고백하면 그분만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이 사실을 나타내고 있고, 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경배합니다. 경배하는 모든 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기가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배의 기본입니다. 이런 생각 없이 예배하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안 됩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은 존재문제에 있어서 나와는 전혀 다르신 분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할 이야기가 많지만 간단히 이 정도로만 말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셋째는 심판주로서 기념이 이 이름 안에 있습니다.

9. 예, 그 이름에 심판주로서의 기념도 들어있다고요? 어떻게 그 이름에 심판 주라는 의미가 있습니까? 판사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답: 그렇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시편 9:16절을 읽어봅시다.

[시9:16]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음이여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었혔도다.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다고 기록되었는데요, 다른 번역을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9:16] 주께서는 그가 행하시는 심판으로 알려지시나, 악인은 자기 손으로 행한 일로 덮에 걸리는도다.(한글 킹제임스 역)

[시9:16] 여호와와는 의로운 심판으로 자기를 나타내시고 악인들은 그들이 행할 일로 함정에 빠진다.(현대인의 성경)

[시9:16] 여호와께서는 그 行하시는 審判으로 自身을 알리시며, 惡人은 스스로 行한 일에 걸려든다.(바른 성경)

이 번역들은 다 여호와께서 심판으로 자기를 알게 하신다고 번역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주 만물이 다 여호와께서 창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피조물이 자기는 여호와와 상관없이도 존재한다고 주장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주장을 하는 피조물에게 여호와께서 창조해 준 존재와 생명을 반납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피조물이 자기는 여호와와 상관없이 존재한다고 하니 여호와께서 만들어준 존재를 반납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렇게 반납하면 그 존재는 없어집니다. 그때 아 나는 여호와와 상관없이 존재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심판입니다. 심판으로 자기를 알게 하신다는 말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루시퍼가 그런 주장을 한 장본인이고 루시퍼에게 속아서 아담 부부도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해 준 존재와 생명을 반납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존재와 생명을 상실하게 되지요. 이것이 심판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이런 심판주로서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 문제도 자세히 설명해야 하지만 여기서는 간단히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생명과 구원의 주로서의 기쁨입니다. 어떤 피조물이든지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과 상관없이 결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면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그의 생명과 존재에 보증이 됩니다. 한 때 여호와와 상관없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가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돌아오면 구원받습니다. 물론 이 지구상에서는 절차가 있지요. 예수님의 대속이 있고 그 대속을 믿음으로 다시 생명과 존재를 보장받습니다. 셋째와 넷째 기쁨에는 예정론 문제까지 다 들어 있지만 계시록에 인에 대하여 공부하면서 그런 문제까지 다 말씀드릴 수는 없네요. 그러면 계시록 자체를 강론하는 것이 아니고 교리를 말하는 시간이 될 것이니까요.

10.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인쳤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에 포함된 이런 모든 사실을 깨닫고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거룩하게 경배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뜻이라는 말입니까?

답: 그렇지요. 우리의 의식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런 의미가 깊이 새겨져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144000명입니다. 이 숫자에 대하여서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겠지만요, 애청자들이나 목사님이나 저나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하겠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 이름의 의미와 사상을 잘 깨달아 알아서 마지막 때에 큰 환난의 때가 지나고 천연계의 창조들이 있고난 후에 일어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무리 중에 있어야 하겠지요.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힘써 알아서 그 이름의 사상이 나의 사상이 되어 올바르게 경배하는 생활을 하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